

국내 사료 전문가 한자리에, 사료 연구 협업 논의

- 5월 9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사료산업 주요 현안 공유 및 민관 연구 협업 방안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2,183만 톤의 배합사료가 소비된다.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이 약 45%가 증가해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자급률은 20%(2022년 기준)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가중 평균 가격

**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2023)’, 사료 수급 실적 및 배합사료 가격 동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사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를 5월 9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사료 전문가 협의회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 국내 사료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사료협회 등 사료 업무 담당자와 농협사료, 씨제이 피드엔케어, 천하제일사료 등 산업체 사료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사료협회에서는 ‘국내 사료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회 소개와 국가 연구기술 수요 조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료 업계에서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사료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사료업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사료협회 김동환 소장은 “국내 사료산업 발전은 사료 개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와 연구 협력으로 이룰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 이번 협의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료업계와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국내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국내 사료 산업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4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현정 (063-238-7450)
		담당자	연구관	강환구 (063-238-7455)

2024년 국내 사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국내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전문가 협의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연구 협력 강화
- 일정 및 장소: 2024.05.09.(목), 13:00~16:30, 축산원 5층 강당
- 참석자: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R&D 담당자 관련 연구자 등 약 50명 이상
 - * 사료협회 및 사료관련 업체 R&D 담당자

□ 주제발표 및 내용

- 국내 사료산업 산업 현황·연구 추진 내용 등 발표 및 종합토론
 - 주제 발표(총 5주제) : 축산원(1), 협회(1) 및 업체별 발표(3)
 - * 축산원 : 축산원 사료공정심의회 및 기술수요조사 관련 세부내용
 - * 발표 업체(주제) : 사료협회(산업), CJ feed&care(소), 농협사료(돼지), 천하제일사료(가금)

□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진행
13:00~13:30	30' ○ 참가자 등록	* 사회: 강환구
13:30~13:40	10' ○ 개회식(원장님 인사말)	* 축산원장
13:40~14:00	20' ○ 국내 사료산업 현황 및 전망	* 사료협회
14:00~14:20	20' ○ 축산원 사료공정심의회 및 기술수요조사 안내	* 축산원
14:20~15:20	60' ○ 축종별 사료 연구 현황 및 방향(3주제)	* 외부전문가
15:20~15:30	10' 휴식시간	
15:30~16:30	60' ○ 종합토론 : 사료산업 애로사항 등 협의	* 동영과장
16:30	- ○ 폐회	